

Andrew Basden을 만나다

세상에 관심 갖기

㉞ 인터뷰_최용준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학술지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영국 쉐포드대학(University of Salford)의 앤드류 바스덴(Andrew Basden, Professor of Human Factors and Philosophy of Information Systems) 교수를 본 동역회 실행위원이자 학술지 <신앙과 학문>의 편집위원장인 한동대 최용준 교수가 만났다.



최용준 :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바스덴 : 12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것이 제 삶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시는 일들을 저는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라는 말씀에 저의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1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계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환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Green Party(녹색당)의 일원으로 섬기면서 기쁨을 얻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 일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저 ‘괜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일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종말에는 지구가 불에 타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폴 마샬(Paul Marshall)의 <Heaven is Not My Home>(『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IVP 역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폴은 제가 가진 의문들을 풀어 주었고, ‘순종이 명분보다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연과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 재림 이후에도 지금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뿐 아니라 온 피조물에 미친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된 자로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창세기 1장 말씀과 연결되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책임이자 소명이며, 더불어 예술, 학문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로서 이 부분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 학문에 기독교적 정신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의미의 구원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용준 :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스덴 : 강연이 있어 왔습니다. 제 전문분야인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학문의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한 도예베르트 철학과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연구도 드문 일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전문분야를 연관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국의 훌륭한 기독교학자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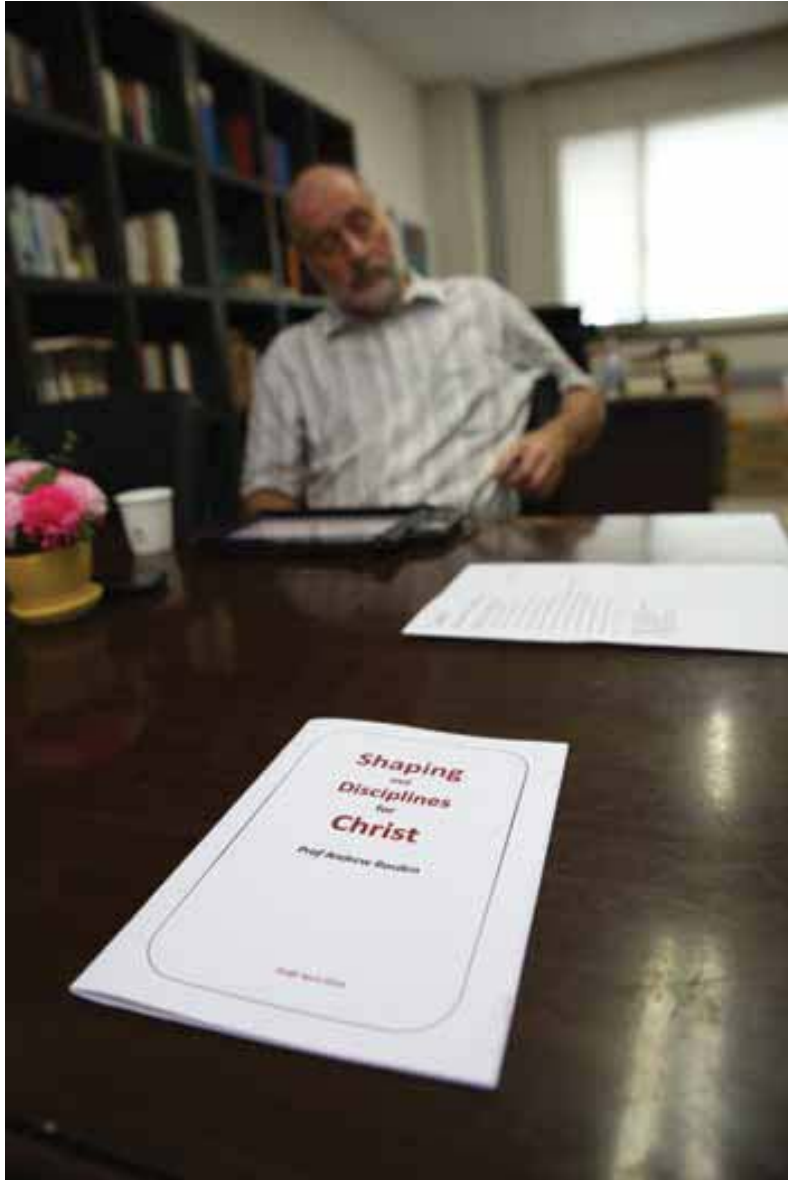
최용준 : 고신대, 한동대, 백석대 등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과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바스덴 : 사실 기독교 대학은 영국에서는 낯선 개념입니다. 학문의 풍토는 열려 있지만, 기독교인만 참여하는 곳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인들의 성장을 위해 온실 역할을 하는 폐쇄적인 기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 중에는 오히려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고 각각의 정책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오늘날 영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이 잃어버린 열정과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환경 운동을 이끄는 기독교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기독교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과거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유럽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기독교는 구원받아 성결해진 삶, 현재에 중점을 둡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미 받은 구원과 그 삶을 넘어 세계와 자연, 환경에 사명 의식을 가진다면 이 침체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용준 :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반대학에서 기독교학자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동료 교수들, 학생, 또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생길 적은 없었는지요.

바스덴 : 글썽요.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게 마련이죠. 해석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을, 실증주의자들은 해석주의자들을 멸시하는 이런 식의 긴장감 말입니다. 또 교수들 간 업무 분담에서 다소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이라든 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최용준 : 교수님의 주요 연구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스덴 : 제 전공은 정보통신시스템, 즉 정보통신기술 활용입니다. 교수직을 맡게 되었을 때, 학장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연구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헤르만 도예베르트라는 네덜란드 기독교학자와 정보통신체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라고 하더군요. 일반대학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도예베르트의 기독교적 관점을 언급은 했지만 강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예베르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의 학문이 훌륭하기에 일반대학에서도 인정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학자들과

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정 속의 개체가 갖는 의미와 규범성 등을 강조했고 현실의 다양성과 일관성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 관한 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며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최용준 :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삶과 학문을 통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스덴 :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독교적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실행하고, 디자인하고, 이론을 세우는 데 성경적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에는 학문 고유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학문과 신앙 사이의 접점을 찾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철학은 확실히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계에 다양성과 섬김의 중요성, 현실 세계의 규범성을 인정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최용준 : 영국에도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자 하는 단체나 운동이 있는지요.

바스덴 :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속한 Christian Academic Network가 영국 내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워크숍과 다양한 책자들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West Yorkshire School Of Christian Studies(WYSOCS)라는 단체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신앙관을 다루면서 Transforming the Mind 컨퍼런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관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논할 뿐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최용준 :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스텐 : 우리가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기후 변화, 기술의 발전, 경제 시스템, 국제적 정보통신 등 우리는 이제까지와 질적으로 다른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가능성을 리드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상에 반응하는 것 말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들을 나누고 세속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이러한 성숙의 이원적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경우, 아직은 미미하지만 30년 전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30년 전만해도 기독교는 오래되고 뒤쳐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영국 교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다양한 종교 중 하나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동성애 반대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구닥다리 종교수준으로, 또는 아예 악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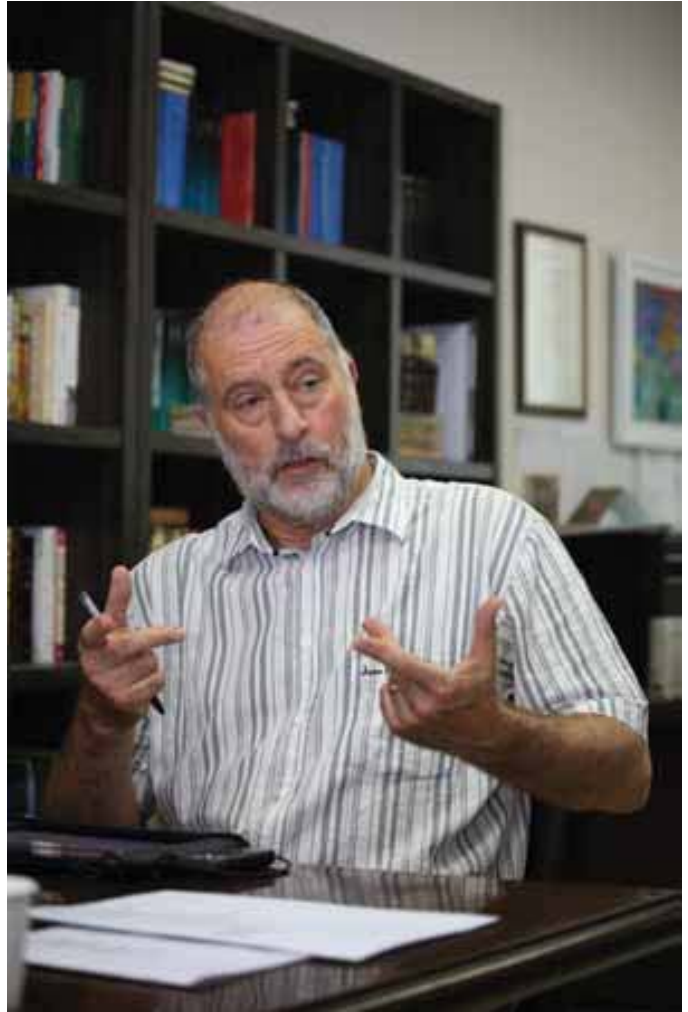
최용준 : 요즘 영국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바스덴 : 영국의 기독교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책임문제에서 그러합니다. 1990-2000년 초에는 이 책임에 동의했지만,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환경주의라든지 반풍력운동, 기후변화에 대한 무시 등 새로운 사회적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쾌락적인 생활방식에 근거한 빈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터를 혹시 다시 허무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유럽 기독교의 영광이 허물어졌습니다.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영국은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만 가까운 미래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다함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량하며, 관계에 믿음을 가지고, 온화하며,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도 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기독교만 나무심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촉진하고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영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소망합니다.

한동대 학생 한 명이 사람들의 참여로 전 세계에 숲을 만드는 트리플래닛(Tree Planet)이라는 환경 관련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창업하여, 한국뿐 아니라 몽골 및 중국에서도 나무심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상이 녹아 사회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움직이는 것 아닐까요?



최용준 :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바스덴 : 우선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은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교로 지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은 세 개의 대륙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 일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최용준 : 감사합니다.